



① '번지점프를 하다' 태안 갈음리 해수욕장 ②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경북 청송 주왕산 주산지 ③ '스캔들' 부산 내소사 전나무 터널

# 가을 정취 '흠뻑'... 영화 속 그 길을 걷는다



## 단풍이 아름다운 여행지 4選

▲태안 갈음리 해수욕장(번지 점프를 하다) = '난 다시 태어나도 너만을 사랑할 거야'.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대사를 관객들에게 남긴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대학시절 비 오는 날 우산속으로 슬며시 들이온 태희(고 이은주)만을 사랑한 인우(이병헌). 인우가 군대 입대하는 날 태희는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해 약속장소에 나가지 못한다. 17년 후 국어교사가 된 인우는 세상을 떠난 태희의 흔적을 지닌 남학생을 발견하고 마음을 뺏긴 후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독특한 줄거리의 영화다. 영화에서 MT를 떠난 두 사람이 노을을 등지고 왠츠를 추던 장면이 촬영된 곳은 태안의 갈음리 해수욕장의 소나무 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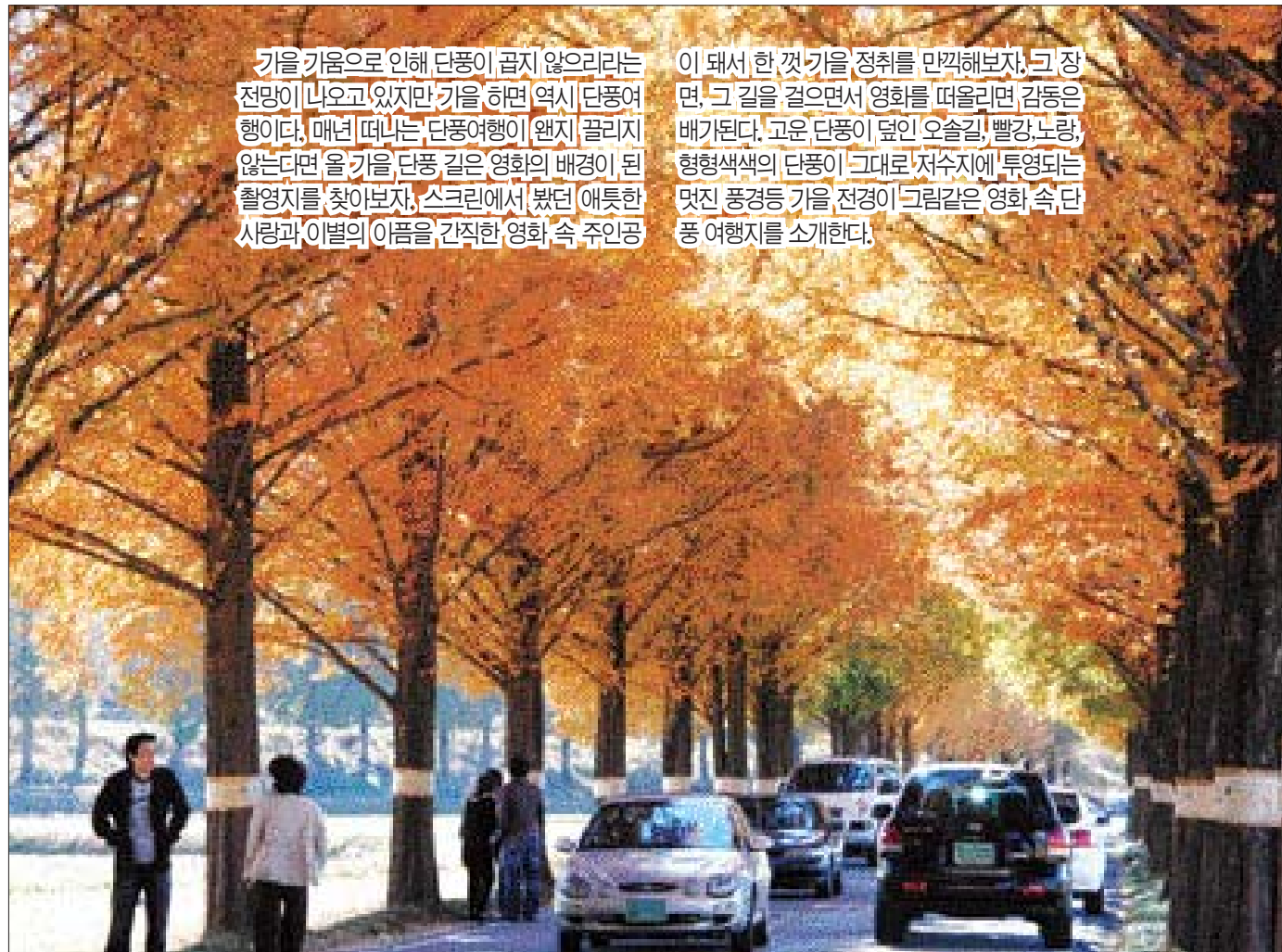
빨강고, 노란 단풍의 아름다움과 하얀 백사장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경북 청송 주왕산 주산지(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 천진한 동자승이 장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과한 만장한 인생사가 신비로운 호수위 앞자의 아름다운 사계 위에 잔잔히 그려져 감동을 주는 영화다. 배경이 되는 주산지는 천진한 동자승마냥 신기함이 깃든 보물 같은 연못이다.

주왕산 단풍도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지만 영덕방면으로 가다가 있는 주산지의 단풍도 압권이다. 물속에 뿌리를 담은 왕버드나무가 단풍잎새를 달고 있는 모습을 찍기 위해 가을이면 사진작가들이 수십여명씩 찾아온다.

주산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천리)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새벽을 알리는 새들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숲속의 어둠을 저만치 밀어낸다. 그 사이를 비집고 주산지에 가을이 오면 하얀 물안개가 불꽃처럼 피어오르듯 저수지를 하얗게 수놓는다. 색동옷으로 갈아입은 나뭇잎들은 울긋불긋한 자태를 한껏 뽐내며 수면위에 '천상(天上)의 그림'을 그려낸다. 1만여평 자그마한 못속에는 30여 그루의 왕버드나무가 '주왕의 전설'을 머금은 채 주산지를 지키고 있다.

물에 비친 하늘과 산과 숲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며 그림자로 하나가 된다. 바람이 숨을 쉰이듯 잔잔한 물속으로 구름이 지나가고 기암괴석은 몸을 담근다. 주산지는 신록이 누부신 붉은 붉대로 단풍이 우거진 가을은 가을대로 독특한 멋을 풍긴다.



영화 '가을로' 등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됐던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8.5km에 이르는 국도변 양쪽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가로수 길은 그 빼어난 정취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가을 기운으로 인해 단풍이 곱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가을 하면 역시 단풍여행이다. 매년 떠나는 단풍여행이 언제 끝리지 않는다면 울긋불긋한 단풍의 배경이 된 촬영지를 찾아보자. 스크린에서 봤던 애뜻한 사랑과 이별의 이품을 간직하신 영화 속 주인공이 돼서 한 끼 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자. 그 장면 그 길을 걸으면서 영화를 떠올리면 감동은 배가된다. 고운 단풍이 덮인 오솔길, 빨강노랑, 형형색색의 단풍이 그대로 저수지에 투영되는 멋진 풍경 등 가을 전경이 그림같은 영화 속 단풍 여행지를 소개한다.

특히 가을철 이른 새벽에 이곳을 찾으면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버드나무 밑동을 휘감는 모습이 신비스럽다.

조선조 숙종 46년(1720) 착공해 1년만에 완공된 주산지는 1만여 평 정도로 자그마하다. 인공저수지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신비스러운 내주왕산의 절골과 함께 청송 8경의 하나로 손꼽힌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가을로) = 삼봉백화점 붕괴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다. 결혼준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현우(유지태)와 민주(김지수), 백화점에서 현우를 기다리는 민주는 붕괴의 현장에 갇히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슬퍼하던 현우에게 '민주와 현우의 신혼여행'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현권의 다이어리가 전달된다. 다이어리의 지도를 따라 가을로 여행을 떠나다 때면 마주치는 세진(엄지원)과 가을로의 동행을 시작한다.

영화의 리스트 신에서 민주가 환한 미소를 머금으며 걸어가던 아름다운 장면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촬영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 길은 8.5km에 이르는 국도변 양쪽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가로수 길은 마치 영국 왕실의 근위병들이 열병식을 하는 듯 하다. 등산을 하던 민주와 현우가 소나기를 만나 비워 틈에 피신하는 장면은 경북 포항의 내연산, 내연산은 보경사 계곡의 폭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여기에 붉은 빛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단풍은 가을의 정취를 깊게 한다.

▲부산 내소사스캔들-조선남녀 상열지사) = 조선 최고의 바람둥이 조원(배웅준)과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지만 음탕한 조씨(이미숙)가 오랫동안 정절을 지켜온 숙부인 정씨(전도연)를 타락시키기 위해 내기를 벌이다 조원과 숙부인이 진짜 사랑을 이루게 되는 영화 스캔들. 스캔들의 주요 촬영지는 내소사. 내소사를 떠올리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있는 전나무 터널을 떠올린다. 이 터널을 지나면 일주문 까지 아름다운 단풍나무길이 빨간 자태를 뽐내고 있어 단풍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현존하는 사찰의 꽃살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대응보전의 8짝 꽃살문은 가을 단풍여행에서 얻는 특별한 답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55-8888 '사랑세상' 방문

**가발**

초슬림!!

귀여운 분위기와 인격을 높여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처: 555-8888, 555-8888, 555-8888

최종 이수: 555-8888, 555-8888

**등대바다**

등대바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명동 400-1

010-8400-4001